

최저임금 여파, 결국 편의점까지… 서민물가 ‘빨간불’

세븐일레븐·GS25·CU 등 편의점 일부 도시락 등 최대 300원 인상 외식·식품업계도 제품가격 올려

서민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외식·식품업계에 이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생필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업계측은 인건비와 임대료, 원재료 가격 등이 반영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은 당분간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최근 일부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고 GS25도 일부 도시락과 주먹밥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식품 가격을 인상해왔다. 식품의 가격 인상은 끝마친 상황이며 PB상품, 생필품 등의 가격 인상 계획은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한 고객이 편의점 도시락을 살펴보고 있다.

생필품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CU측에서 결정하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생활용품 가격 인상은 외식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가격 인상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내후년 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 인상 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편의점 식품 인상에 앞서 외식·식품업계도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인건비 영향을 받는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가장 빨랐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KFC, 맘스터치 등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모드 가격을 인상했다.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렁탕, 신전떡볶이, 김밥천국, 파리크라운, 커피빈 등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이어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 분위기를 이어갔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일부터 햄반과 스

팸, 냉동만두, 어묵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6~9%대로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햄반은 원재료인 쌀값 상승이 주요 인상 요인으로 평균 9% 인상했다.

또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스팸과 냉동만두 가격도 각각 평균 7.3%, 6.4% 올랐다. 어묵도 연육과 대파, 당근, 양배추 등 원부재료 가격 인상으로 평균 9.8% 가격을 인상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수년 간 원가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며 감내해왔지만 최근 주요 원·부재료 및 가공비, 유통리티 비용이 지속 상승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며 “실제로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소비자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음료도 지난달부터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8% 올렸다. 인상 품목은 전체 215개 제품 중 17개 품목이다. 인상폭은 전체 매출액 대비 1.5%대로 한정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한국GM 판매 반토막… 창원공장도 신차배정 없으면 ‘존폐 위기’

〈지난달〉

군산 폐쇄에 소비자 불안감 확산 판매실적 쌍용차에 밀려 4위로

한국지엠(GM)의 미래가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미국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며 한국지엠의 지난달 판매실적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가운데 4위로 밀려났다. 특히 창원 공장 생산 차종은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지면서 더 이상의 신차 배정이 없을 경우 군산 공장의 수순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지엠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3% 급감한 5804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군산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한국지엠 전북 군산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폐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한국지엠이 무너진 자존심과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신차 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GM 본사에서 장기간 한국지엠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차를 배정해준다면, 국내 철수설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판매 실적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종인 경차 스파크, 경상용차 디마스·라보의 판매량이 최근 4년새 급격히 감소해 더 이상의 신차 배정이 없다면 군산 공장의 위기가 창원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창원 공장의 생산 모델 판매 실적(내수+수출)은 4년새 25만대에서 15만대로 40%나 줄었다. 지난 2013년 25만대에서 지난해 15만대로 감소했다.

부평공장(1·2공장)에서 생산되는 아베오·트랙스·말리부·캡티바 등 생산 차종의

총 판매량은 2013년 38만대에서 지난해 34만대로 10%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창원 공장(40%)보다는 훨씬 낮다. 이번에 문을 닫은 군산 공장은 크루즈·올란도 등 생산 모델의 판매 실적이 2013년 15만대에서 지난해 3만대로 80%나 급감한 바 있다.

모델별로는 스파크가 2016년 한 때 8만 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5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말리부와 더불어 최근 한국지엠의 실적을 견인하는 볼륨모델 중 하나인 스파크는 지난달에도 2399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39.3% 감소했다. 디마스·라보도 지난해 판매량이 9000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GM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신차투입을 통한 한국 진류를 결정한다 해도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성운 기자 ysw@

관료·정치인 등 낙하산 그만… 전문 CEO 절실

》》 1면 ‘국민연금, 변해야 산다’서 계속

논란이 커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든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한다. 현재 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 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사 영입이 절실하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편 만큼이나 기금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역대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

실제 국민연금을 거쳐간 역대 이사장

16명 가운데 절반은 장·차관 출신으로 대부분 정권의 보은 인사들이 차지했다. 국민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이사장 자리에 투자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 선임되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1987년 국민연금 설립 초기 멤버인 장원찬 1대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시 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들어 심우선 2대 이사장과 이상수 3대 이사장은 군사단장 출신이었다. 문민정부 들어 선 처음으로 복지 분야 관료 출신인 조기욱 4대 이사장이 선임됐다. 다만 김태환 5대 이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출신으로 다시 정치인이 빌터됐다.

이후 6대 최선경 이사장부터 보건복지 분야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이사장직을 맡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을 포함 7대 전계희 이사장, 8대 차흥봉 이사장 모

두 취임 몇 개월 만에 복지부 장·차관에 임명되며 자리를 비우는 등 낙하산 논란에 자유롭지 못했다.

10대 장석준, 11대 김호식, 13대 전광우, 14대 최광, 15대 문형표 이사장은 모두 정부에서 차관 또는 장관을 역임한 후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맡았다. 12대 박해춘 이사장은 유일한 금융업계 출신이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난해 11월 말 기준 61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등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오는 2043년에는 기금규모가 2500조원까지 불어나는 등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모이면서 정권의 개입은 보다 구체화되는 등 곳곳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봉준 기자 bj35sea@

김동연-이주열, 정책변화 대응방안 논의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

연임 결정 후 전격 오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깜짝’ 회동을 했다. 이 총재의 연임 결정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남이다.

5일 한은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최근의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경제수장은 “우리경제에 대해 실물 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다수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최근 미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대한 각국의 강경대응 움직임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5일 오찬회동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은행

두 수장은 또 “이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향후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고 소통함으로써 경제 상황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